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31~09/06

1.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항로 리스크 및 대체 경로 모색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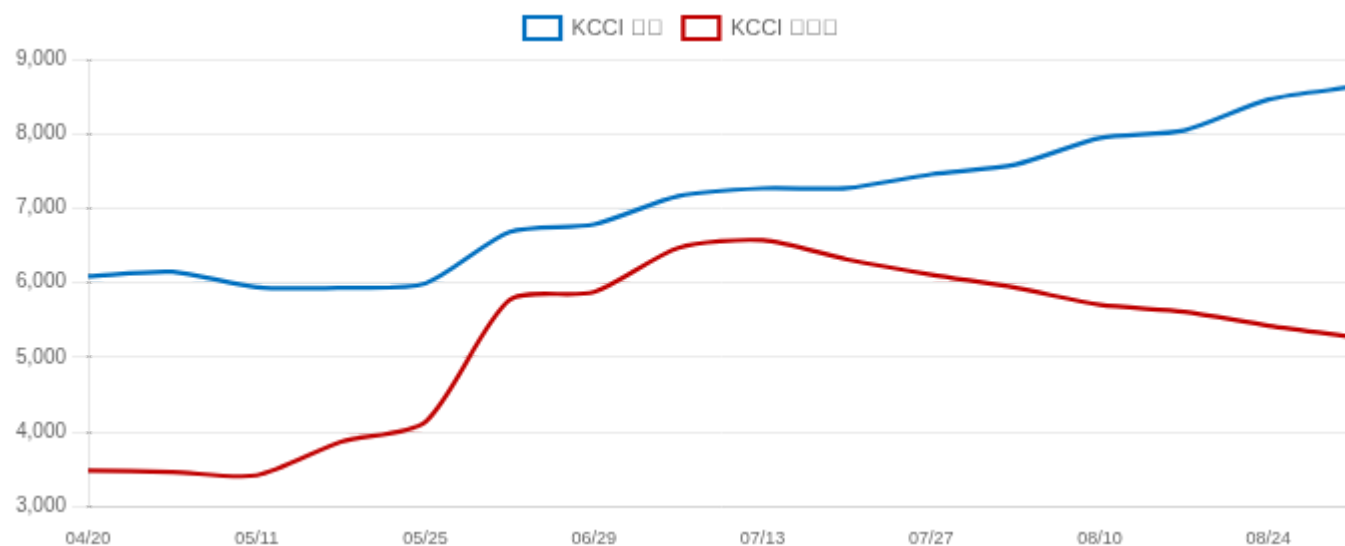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 권역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항로 리스크 심화가 핵심 흐름으로 부각됨. 간헐적 봉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주요 선사들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며 중동 항로의 불확실성이 급증함. 이는 에너지 수송과 물류 전반에 걸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야기함.

이러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유가 및 해상 운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사들은 대체 경로 모색과 함께 운항 일정 재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동	8,625 \$/FEU	08/31	+2.0%	+13.7%
KCCI 지중해	5,273 \$/FEU	08/31	-2.8%	-11.1%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8/31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항로 리스크 및 대체 경로 모색

호르무즈 해협의 간헐적 봉쇄로 주요 선사들의 운항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며 중동 항로의 불확실성이 급증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발표한 지 24시간도 안 되어 통행을 재차 차단하면서, 프랑스 선사 CMA CGM 소속 선박 4척이 페르시아만 이탈을 포기하고 회항함. 회항 선박은 1만5254TEU급 CMA CGM 에버글레이드, CMA CGM 갈라파고스, 2592TEU급 CMA CGM 마나우스, 3534TEU급 CMA CGM 다이아몬드 등 4척으로, 당초 12척 선단의 일부였음. 같은 시각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8척의 선박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사별 위험 평가와 운항 결정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협 통제 주체의 일관성 없는 조치로 인해 선사들의 운항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줌.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포함된 선단의 회항 결정은 해당 선박의 운항 스케줄 지연, 회항에 따른 추가 연료비 및 용선료 부담, 그리고 화주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허브 항만인 제벨알리와 중동 각국 항만을 연결하는 피더 네트워크에도 연쇄적 영향이 예상됨.

회항한 선박들은 향후 해협 통행 재개 시점과 안전 보장 여부를 확인한 후 운항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일부 선사는 해협 통과를 강행했지만, 안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통행 선박의 보험료 인상이나 특별 위험 수당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해협 내 선박 운항이 지연되면 중동발 환적 화물의 흐름이 인근 항만으로 분산되거나, 일부 고부가가치 화물이 항공이나 육상 운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로, 이번 통행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선사들은 대체 항로로 희망봉 우회나 아라비아해 인근 환적 항만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운항 일수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아직까지는 단기적 혼란에 그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동 지역 물류 구조의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CMA CGM 소속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 이탈 시도 중 회항함 (1만5254TEU급 2척, 2000~3500TEU급 2척)
- 회항 선박은 당초 12척 선단의 일부였으며, 동시에 8척은 해협을 통과함
- 이란이 해협 재개를 발표한 지 24시간 내에 통행을 재차 차단함
- 페르시아만 내 제벨알리 등 허브 항만과 피더 네트워크 연쇄 영향 예상됨
- 운항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부담,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제기됨

전망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중동 기항 선사들의 운항 일정 변동성이 불가피함. 해협 긴장이 장기화되거나 간헐적 봉쇄가 반복될 경우, 선사들은 아라비아해 인근 항만으로의 환적 거점 이동이나 희망봉 우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해협 통과를 강행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와 위험 수당이 상승하여 중동 항로의 운임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시사점

화주 — 중동항 또는 중동발 화물의 리드타임 증가와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운송 수단(항공, 육로)이나 재고 확보를 검토해야 함.

포워더 — 해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사별 운항 스케줄 변동을 반영한 대체 라우팅 제안이 필요함.

항만·선사 — 페르시아만 내 항만은 환적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선사는 선박 위치와 안전 정보를 기반으로 유연한 항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참고자료: Linerlytica, 호르무즈 탈출 시도 CMA CGM 4척 회항...8척은 통과 (검색일: 2026-09-06)